사 설

새싹 포교의 중요성

한 사회의 미래는 그 사회가 어린이를 대하는 태도로 전망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새싹 불자의 오늘'을 통해 본 '한국불교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불행히도, 대단히 어둡다.

정교한 논리나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들 필요도 없다. 일상의 경험에 비춰봐도 명백한 사실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가 기대되는 행사나 대형불사에 들이는 노력과 비교해도 그렇고, 정기적으로 어린이 법회를 여는 사찰의 수를 봐도 그렇다. 서울지역의 경우 조계종단에 소속한 320개 사찰 중 어린이법회를 여는 곳은 25곳에 불과하다.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늘 되풀이되는 '교사·교재·프로그램·재정 부족…' 따위의 부족 타령은 변명 이상의 설득력을 행사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늘 뒷전으로 미루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조계종 포교원을 비롯한 어린이 포교단체들의 노력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상당히 밝게 한다. 조계종 포교원에서는 24일부터 '불교 어린이 교사대학'을 개강할 예정이고,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에서도 어린이법회의 성전이라 할 통일 〈어린이 법요집〉을 발간했다. 연내에 〈어린이법회 지침서〉도 낼 계획이라 한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이제부터는 '부족'을 이유로 '당위'를 외면하는 개개 사찰의 무책임한 태도는 설자리를 잃게 됐다. 이제부터라도 포교 일선에 선 사찰에서는, 진짜 부족한 것은 인적·물적 자원이 아니라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에 대한 '의지와 인식 부족'임을 자각하고 현장에서의 실천적 노력에 힘 쓸 것을 기대한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시스템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스템을 운용할 사람들의 자발적 노력이다.

차제에 또 한 가지 언급해 둘 것은, 양질의 교사가 배출되고 다양한 교재와 프로그램이 개발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개별 사찰의 형편과 지역의 환경을 고려하여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나름의 최선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스님과 사찰이 어린이들에게 친근한 존재가 되게 하는 일이다. '즐거이 놀며 배울 수 있는 곳'보다 더 훌륭한 교육의 장은 없다.

공무원불자련 창립 환영

한국 공무원불자연합회가 창립되었다.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축하를 보낸다. 너무나도 꼭 필요한 것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나를 기쁘게 한다.

현대 사회는 이전의 가정 중심의 사회와는 달리 직장에서의 삶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이다. 당연히 신앙 생활도 가정과 직장 사이의 단절이 없이 이어져야만 하고, 그럴 때에만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불교계는 더더욱 직장인의 신행운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타 종교에 비교할 필요도 없이 우리 불교의 직장 신행 운동은 아직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이 불교의 사회화를 통해 이 땅에 바로 불국토를 건설하여야 할 우리의 이상이 구체적 현실성을 갖지 못하고 이념 속에서만 표류하게 되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공무원 불자연합이 창립되었다 하는 것은 가뭄의 단비와 같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우선 공무원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여타 직장의 신행운동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의미를 지닌다.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국가의 공복들의 신행운동은 곧바로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른 직장들의 신행운동에도 고무적인 파급효과를 끼치게 될 것이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소중한 태동이 보다 더 큰 힘으로 자라나도록 그 공무원 불자들이 큰 서원을 세우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물론이요, 교계에서도 충분한 지원을 통해 공무원 불자연합을 통해 직장 신행운동이 높은 차원으로 비약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단과 사찰, 그리고 스님들과 불자들의 관심과 격려가 지속되어, 공무원들의 신행운동이 미래의 불교계를 푸르게 가꾸고 직장 신행운동이 사회를 맑히는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큰 나무로 자라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처님의 위없는 법에 의지하되 불교의 커다란 관용성을 통하여 다른 종교에 대한 배타성을 버리고, 모든 종교와 화합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 사회를 보다 맑고 밝게 바꾸어 나가는 직장 신행운동으로 커 나가도록 해야 한다.

"달라이라마 방한" 여론 뜨겁다

종교·정치인등 입국허용 선언문 잇달아

외국 저명인사 10여명도 대통령에 친서

달라이 라마 방한에 대해 한국정부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달라이라마의 방한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내외에서 높아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학계·시민사회단체·법조계·문화예술인·영화계·방송언론계·여성계·정치인 각 33명이 잇달아 달라이 라마 방한 지지 선언문을 발표했으며, 미국의 영화배우 리처드 기어 등 외국의 저명인사들도 잇달아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에 지지 선언을 보내는 한편 김대중 대통령에게 달라이 라마 입국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한준비위원회는 11일 종로 탑골공원에서 '경진년 문화주권수호 국민행동의 날' 행사를 갖고 달라이 라마의 11월 16일 한국방문 허용을 촉구하는 '종교인 333인 선언'과 '문화독립 선언문'을 발표했다.

3백여명의 행사 참석자들은 이어 명동의 주한중국대사관 앞까지 가두행진을 벌인 뒤 대사관 앞에서 '삼전도의 극치'란 제목의 퍼포먼스를 공연(동국대 풍물패)하고, "중국 정부는 주권을 가진 나라와 나라 사이에 존중되어야 할 외교적 원칙을 준수하고, 인류공동의 정신문화적 이익을 위해 대승적 자세로 돌아가라"는 내용의 중국 주룽지 총리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방한준비위는 오는 29일 오후2시 조계사에서 '문화주권수호를 위한 범국민궐기대회'를 열어 보다 강도높은 달라이라마 방한성사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방한준비위원회는 이에 앞서 7일 이만섭 국회의장 앞으로 달라이 라마 방한을 허용해 달라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청원서에 서명한 김원웅 오세훈(한나라당), 정범구(민주당)의원은 소개서에서 "달라이 라마는 21세기 인류가 가야 할 평화를 실천해 온 종교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기에 "'달라이 라마 방한 허용' 청원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 및 정치인 33명도 10일 달라이 라마 방한성사와 문화주권 회복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방한준비위원회는 10일 달라이 라마 방한성사와 문화주권수호 서명운동에 미국의 환경운동가인 개리 스나이더씨 등 외국의 저명인사 10명이 메일을 통해 동참해왔다고 밝혔다. 서명운동 동참 인사에는 7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머레드 맥과이어씨를 비롯해 나탄 카츠 미국플로리다대학교수, 토머스 팀트 신부, 잔 앤더슨 독일뮌스터대학 교수, 플로리다 국제대학 종교학 선임교수인 나탄 카츠, 독일 뮌스터 대학 화학분석과 교수인 존 앤더슨 박사 등이 포함됐다.

거센 방한여론에도 불구하고 주룽지 중국총리는 최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 인터뷰에서 달라이라마 방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주총리는 한국정부의 이른바 '중국 눈치보기'여론과 관련 "수교국가의 분열을 획책하는 세력을 반대하는 것은 눈치보기가 아닌 국가간 신의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북한산 태고사 성역화

태고종 부지 4천여평 매입…보우스님 주석처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종조인 태고 보우국사 부도(보물 749호)와 탑비가 봉안돼 있는 북한산 태고사를 성역화하기 위한 불사에 돌입. 그 기초작업으로 태고사 주변 임야 3600여평과 밭 600여평 등 총 4200평을 매입했다. 이로써 태고종은 종단토지로 돼 있던 기존의 경내 부지 2천여평을 포함 모두 6천여평을 확보하게 돼 태고사 성역화의 기틀을 확보했다.

태고사는 태고 보우스님이 중흥사에 주석하면서 5교9산을 하나로 통합, 원융불교를 실현한 이후 개인적인 수도처로 창립한 유서깊은 사찰이다.

이경숙 기자

새스님 106명 탄생

조계종 교육원(원정 일면)은 10일 송광사 금강계단에서 특별구족계 수계식을 갖고, 비구 93명 비구니 13명등 총 106명의 스님을 배출했다.〈관련인터뷰 4면〉

이에 앞서 승가고시위원회(위원장 무비)는 4일 송광사에서 제20회 구족계 수계산림 지원자 110명을 대상으로 4급 승가고시를 시행했다. 김원우 기자

봉암사 조실 진제스님 추대

12일 법회 2천명 참여

조계종립 특별선원 봉암사 태고선원 조실 진제스님 추대법회가 12일 봉암사에서 거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백양사 고불총림 방장 서옹스님과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종산스님 등 2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법회를 알리는 타종과 주지 효광스님의 인사말, 축사, 진제스님 약력소개와 법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서옹스님은 축사를 통해 "몸을 뒤쳐 한 모금에 동해물을 다 말리니/온 세계의 산과 강을 흔들어 놓았네/진흙에 화하고 물에 합함에 사람이 알지 못하니/온 나라에 쇠나무꽃 향기가 가득하도다"라고 설했다.

진제스님은 조실추대 법어를 통해 "여래지에 이르면 세간법이 출세간법이요, 출세간법이 세간법이라"고 설하고 "세상을 맑히는 도인이 봉암사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법어전문·인터뷰 12~13면〉

이에 앞서 봉암사 주지 효광스님은 인사말에서 "다시금 선화가 만발하여 천하총림을 풍요롭게 할 기틀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도도한 선해(禪海)에 함께 나가자"고 강조했다.

정성운 기자

현 대 만 평 박구원

미래의 노벨평화상은…

회당대종사 탄생 100주년사업회 출범

봉행위장 성초 통리원장

진각종조 회당대종사 탄생 1백주년 기념사업 봉행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진각종은 통리원 회의실에서 제187회 원의회를 개최 '회당대종사 탄생 1백주년 기념사업회'를 발족시키고 봉행위원장에 성초 통리원장을 선임했다.

기념사업회는 오는 2002년 회당대종사 탄생 1백주년에 맞춰 새 세기 생명공동체 실현을 위한 포교, 교육, 복지 등 3대 종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집행위원장 회정대정사는 "종단 스승들의 의견과 다양한 계층의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렴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숙 기자

"국립공원 입장료폐지"

재가연대, 환경부에 요구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상임공동대표 박광서)는 6일 환경부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앞으로 보낸 '국립공원 현안문제 관련 의견서'를 통해 "연인원 4천여만명이 국립공원을 찾아 여가를 즐기고 있다. 국민 여가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연간 2백억원에 불과한 공원입장료 수입에 많은 인력이 배치되고 있는만큼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조계종과 정상화 모색

선학원 대책위 구성

선학원(이사장 정일)은 9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조계종과의 관계 정립에 관해 협의할 현안대책실무위원회를 재구성했다. 위원에는 선근(위원장, 상무이사), 동진(경북 망월사 주지), 성우(서울화곡동 보광사 주지), 법운(광명 청룡사 주지) 스님 등 4명을 위촉했다.

선학원은 조계종 법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혜창)에서 지난 2일 조계종-선학원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하자고 요청해옴에 따라 현안대책위를 구성했다. 선학원 현안대책위는 빠르면 이달 말 상견례를 겸한 1차 회의를 열 예정이어서 조계종과의 대화는 11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운 기자

서울 문화벨트제외 항의

조계사, 시장면담등 추진

조계사(주지 지홍)는 12일 종무회의에서 서울시가 추진중인 문화재 벨트에서 제외된 문제를 논의하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에 나서기로 했다.〈289호 1면 참조〉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은 이 자리에서 "당연히 들어가야 할 조계사가 서울시 문화벨트 사업에서 빠진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사중의 힘을 집중하여 즉각적인 대응으로 개선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김영일 종무실장은 "서울시에서 문화재벨트 사업을 추진하며 별도의 팀을 구성했었다"며 "자문위원들도 조계사가 당연히 문화벨트 사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최종 확인을 못한 것이 불찰이다"고 보고했다.

조계사는 13~14일 문화전문가로 구성됐던 문화벨트 자문위원들에게 조계사가 배제된 정황을 듣고 사태를 면밀히 분석한 뒤 서울시와 공식접촉을 갖기로 했다. 김원우 기자

포교사 불교의식 교육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병기)은 21일 오후3시 조계사 문화교육관 1층에서 불교의식교육을 실시한다.

포교사 포교능력배양과 의식집전의 통일화로 포교현장에서 포교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마련된 불교의식교육은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8회에 걸쳐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여 실시된다. 교육에는 총 150명의 포교사가 참여한다.

김병기단장은 "포교사의 경우 의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습의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문위주의 의식을 최대한 한글화하는 한글의식수범을 마련해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생활불교·실천불교를 지향하는 동산반야회 창립 제18주년 기념 대법회

청화큰스님 서울 초청 법회

11월 4일 기념특강

念佛과 極樂世界 大法會

염불선으로 광명을 밝히시는 청화큰스님을 모시고 무진년 조상천도행사와 '염불과 극락세계' 주제의 대법회에 불자님들의 수희동참 바랍니다

제 1부 : 무진년 조상 천도의식 (한글의식집전 : 12시)
(개인별 천도를 원하는 분은 미리 접수 바랍니다.)
제 2부 : "염불과 극락세계" 대법회 (오후 2시)

■ 일 시 : 2000년 11월 4일(토) 12시
■ 장 소 : 동산법당 및 동산교육회관
■ 설 법 : 청화큰스님 (전남 곡성 성륜사)
■ 교통편 : 전철 3호선 안국역 하차
■ 문 의 : ☎(02) 732-1206~8

무진장스님의 유마경대강좌

11월 11일 기념특강

"오늘날 유마힐 거사의 출현을 희구한다"

■ 일 시 : 2000년 11월 11일(토) 오후 4시
■ 장 소 : 동산교육회관
■ 설 법 : 무진장큰스님

- 유마힐의 도량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도량에서 오는 길이야"
"도량은 어디입니까?"
"直心이 도량이며, 深心이 도량이며, 菩提心이 도량이다".

유마경 대강좌개설

1.강의일시 매주 일요일 오후 6시
2.교육장소 동산교육회관 (안국동로타리 웅전갤러리 2층)
3.개강일시 2000년 11월 5일(일) 오후 6시
4.입 학 금 50,000원

※등록하신 모든 분들께 유마경 교재와 기념책가방을 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동 산 반 야 회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02)732-1206~8 FAX: 02)732-1207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